

# 제주지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의 관련성 연구

조성태\* · 남진열\*\*

<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논의 및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조사는 2011년 9월에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320명의 데이터를 사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2$ 검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률이 83.4%로 기존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정경제수준만이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관련성이 있었고, 셋째, 아르바이트경험을 매개로 하여 가정경제수준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중 진로결정, 취업, 아르바이트와 관련성이 있는 것

\* 주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동시에 매개변수인 아르바이트 참여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정책 및 후속연구에서 요구된다.

주제어 : 제주, 대학생, 가정경제수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지각.

## I. 서론

아르바이트는 주로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주업에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근로하는 형태로 인식하여 왔다. 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생활비 마련, 또는 사회생활 체험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사업장의 필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과거에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교 학비마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왔다.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이 가출이나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할 때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해결수단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이광호, 2001).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소비문화와 그들의 현실적 구매력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이 용돈부족에 시달리며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학업수행의 주체로 역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 이외의 한 부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일탈로 보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어있고 청소년기의 사회경험과 진로탐색 등 중요한 교육과 경험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 국가나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풍부하다. 우리나라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증가함으로 청소년 노동의 중요성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김한솔·김현기,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아르바이트 경험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정적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김예성, 2007).

청소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높은 등록금의 부담,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학업에 집중하여야 할 학생의 신분에서 근로시장 참여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도에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게 되는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갖는 경제적 어려움은 곧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고, 향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르바이트 참여를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 참여는 학교생활에 장애를 주어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연구주제로 한 기존연구의 경향은 아르바이트 참여와 사회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참여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을 매개변수로 하여 매개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매개역할로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현황

아르바이트(Arbeit)는 독일어로서 일반적인 노동을 의미하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학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옥경희, 1993; 이민경·장원섭, 1999),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달리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어렵기에 학생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명하기로 하겠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돈 마련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가출활동에 대한 유지를 위하여, 세 번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있어온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수가 응답한 것이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사회체험으로써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효진·최진선, 2006).

청소년들은 현대 소비문화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소비문화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유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청소년들의 소비항목(예, 학용품·방과후 간식·교통비 등)이 이제는 핸드폰, 옷, 신발, 장신구, 친구와의 교제비, 게임 장비, 여행 등으로 확대 된 것에서 알 수 있다(이철위, 2000; 이광호, 2001). 이러한 소비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별도의 비용을 부모가 감당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2009)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큰 가장 큰 이유는 용돈마련을 위해서였으며, 직장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인의 부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록(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중 경제적 이유(용돈·생활비·학비마련)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현장경력 형성과 직업능력개발위해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 수준, 어른들의 부정적 시각, 위험한 주변환경, 임금 착취 및 체불, 구타나 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솔과 김현기(2010)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자신이 보장받을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으며 고용주 또한 인권개념의 무지로 근로자 특히 청소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고 있다. 고용주의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에 근로사실을 밝히고 인권침해나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3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전체의 35.4%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대학별로 이루어진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을 보면 그 수치는 더욱 높게 나타난다. 강원도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66.7%에 달했으며(전일우, 2002),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신입생 실태조사에서도 80%에서 60%에 이르는 신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길미, 2001; 정영근·박한샘·김희숙, 2003; 최연실·박한샘·김희숙, 2004). 백지숙(2006)이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분석한 결과 67.3%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상록(2004)에 의하면 지방대학 재학생의 근로경험율은 83.1%로 전국평균 근로경험율에 비해 20%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이 지방대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력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학업에 관한 측면을 다룬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노동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몰입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 참여와 학업성취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제로섬(zero-sum)관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teinberg, Greenberger, Garduque & McAuliffe, 1982; Carr et al., 1996). 제로섬 모델은 시간이라는 물리적 측면임과 동시에 학문적 자기개념과 학문적 열망, 학교에의 몰입, 학업에의 투자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구성체로 개념화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아르바이트가 과제수행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학교몰입 정도를 떨어뜨림으로써 학문적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주당 노동시간이 학교적응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김예성, 2007).

백지숙(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르바이트 할애시간이 대학생활 100%중 51%이상일 때 학업적응·정서적응·대학소속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의 한주간의 시간을 대략 40시간으로 생각하면 아르바이트에 할애한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제적인 이유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김예성(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Ginzberg(1951) 등은 각 개인이 독특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태도·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은 자신의 욕구·능력·가치관·흥미 등의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직업조건 등의 외적요인과의 지속적인 타협 등을 통해서 직업선택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같은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구효진·최진선, 2006).

구효진과 최진선(2006)은 아르바이트 경험이후의 변화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비욕구를 부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구매욕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더 높으며,

이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성(2007)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것이 긍정적인 특성을 지닐 경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등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 2.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최근에 일부학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반응중심모형(response-based model), 둘째는 자극중심모형(stimulus-based model), 세 번째는 상호작용모형(interaction model)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응중심모형은 스트레스를 반응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외적사건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스트레스로 간주할 때 이 반응의 패턴 즉 증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자극중심모형은 S-R 심리학 전통에 입각한 상식적인 정의로 스트레스는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출발되었다. 자극은 인간내부에서 일어나는 조건과 신경학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특성이 포함된다. 즉 스트레스를 생리적 및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적 조건이라고 보고, 스트레스자극 혹은 스트레스 유발자의 특성을 규명하려고 노력한다. 자극중심모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통 속성은 과부하(overload)·갈등(conflict)·통제불가능성(uncontrollability) 등이다. 상호작용모형은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 모형은 스트레스가



심리적 과정과 연계된 개인의 지각현상으로서 스트레스 발생원인은 개체의 욕구와 능력의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개체가 환경적 요건에 의해 자기 자신의 중요한 요구와 동기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또 개체가 스트레스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이영희 외, 1998).

라자루스(Lazarus, 1991)는 스트레스를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강혜자, 2012). 김노은(2011)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탄력성은 그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고 하고 있다. 송남옥(2004)은 스트레스는 어떤 자극이나 어떤 반응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부과된 요구가 자신의 대처능력을 초과한다고 유기체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건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전일우(2002)는 스트레스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자극 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정서체계, 행동체계, 생리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특유 반응을 야기시키는 원인적 행동의 모든 것을 총칭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외부적 압력으로 정서적·신체적 안정에 장애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장래 취업문제, 현실의 등록금 및 생활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진열(2009)의 대학생 스트레스 수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장래문제 스트레스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치관문제 스트레스, 경제문제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옥형(2012)은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 그리고 경제수준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가 적은 편이고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표집된 연구도 적어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트레스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명숙과 이효선(2012)은 대학생이 우울, 취업스트레스, 문제음주는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하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살생각은 더욱 증가하고 더불어 문제음주를 할 경우 자살생각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강좌, 취업교육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중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3. 아르바이트와 스트레스 수준

전일우(2002)의 연구결과에서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66.7%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서는 조금 받는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통, 자주 받는다, 심하게 받는다, 전혀 받

지 않는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43.1%가 조금 또는 보통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주 받거나 심하게 받는 학생도 13.8%로 나타나서 학생들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조금 받는다는 20세 이하 25.2%, 21세 이하 39.7%, 22세 이하 27.3%, 23세 이하 22.7%로 21세 이하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근무지 인간관계가 20.5%로 가장 높았고, 작업환경의 불만족이 13.9%이며, 작업강도의 문제가 9.4% 이고, 보수문제가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는 학업에 장애를 주는 정도가 전체응답자 중 41.4%가 조금 또는 보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크게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개인의 성격과 정체감에 대한 갈등, 교우관계나 이성문제, 가족 갈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교 1~2학년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문제와 관련된 학업 및 대인관계 전반에서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고, 3-4학년생은 학업과 진로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연집 외, 2006).

백지숙(2006)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는 정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대학소속감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김예성(2007)은 주당 노동시간, 노동부담, 스트레스적 노동경험이라는 세 가지 요인은 모두 노동과 학업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서문제를 거쳐 학교적응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체성 갈등 이론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과 학업간 갈등상황에 적용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동특성변수들 중 주당 노동시간 변수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도 강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경험에 대해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로섬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9월에 제주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324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은 후 설문내용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4부를 제외하고 32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하였으며,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61	50.3
	남성	159	49.7
학년	1학년	84	26.3
	2학년	75	23.4
	3학년	80	25.0
	4학년	81	25.3
대학 성적수준	매우 좋은 편	19	5.9
	대체로 좋은 편	198	61.9

	대체로 나쁜 편	93	29.1
	매우 나쁜 편	10	3.1
가정 경제수준	하층	4	1.3
	중하층	77	24.1
	중층	179	55.9
	중상층	52	16.3
	상층	8	2.5
	맞벌이	191	59.7
부모소득 참여형태	부만	92	28.8
	모만	30	9.4
	모두 안하신다	5	1.6
	무응답	2	0.6
	합계	320	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50.3% (161명), 남학생이 49.7%(159명)이었으며,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 26.3%(84명), 4학년25.3%(81명), 3학년 25.0%(80명), 2학년 23.4%(75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성적수준을 보면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이 61.9%(198명)로 가장 많고, 대체로 나쁜 편 29.1%(93명), 매우 좋은 편 5.9%(19명), 매우 나쁜 편 3.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의 응답을 살펴보면 중층이라는 응답이 55.9%(179명), 중하층 24.1%(77명), 중상층 16.3%(52명), 상층 2.5%(8명), 하층 1.3%(4명)이었으며, 부모 소득참여 형태에 대한 응답을 보면, 부모 모두 소득에 참여하는 맞벌이가 59.7%(191명)로 가장 많고, 부만 참여하는 경우가 28.8%(92명), 모만 참여하는 경우가 9.4%(30명),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가 1.6%(5명)이다.

## 2. 측정도구

### 1)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대학 생활중에 지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으로 등록금 스트레스, 학교성적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진로결정 스트레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스트레스 내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파악하였다.

### 2) 아르바이트 참여와 스트레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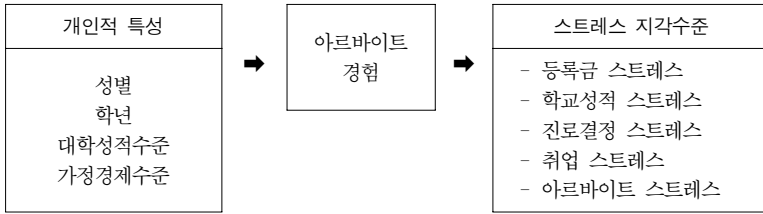
일반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역할로써 아르바이트 참여를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chi^2$ 검증, t-test를 실시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hi^2$ 검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분석결과

##### 1.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현황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참여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차이 (단위: 명, %)

구분		경험유무		χ <sup>2</sup>
		없다	있다	
합계		53(16.6)	267(83.4)	
학년	1학년	17(32.1)	67(25.1)	29.054***
	2학년	8(15.1)	67(25.1)	
	3학년	26(49.1)	54(20.2)	
	4학년	2( 3.8)	79(29.6)	
대학 성적수준	매우 좋은 편	4( 7.5)	15( 5.6)	8.906*
	대체로 좋은 편	29(54.7)	169(63.3)	
	대체로 나쁜 편	15(28.3)	78(29.2)	
	매우 나쁜 편	5( 9.4)	5( 1.9)	
가정 경제수준	하층	7(13.2)	74(27.2)	26.042***
	중층	23(43.4)	156(58.4)	

	상층	23(43.4)	37(13.9)	
--	----	----------	----------	--

\* p<.05, \*\* p<.01, \*\*\* p<.001

대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분포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년의 비율을 보면 4학년이 29.6%로 가장 많았고, 1학년과 2학년이 각 25.1%이며, 3학년이 20.2%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대학성적 수준에 따른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분포를 보면, 대학성적이 대체로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가 63.3%로 가장 높고, 대체로 나쁜 편 29.2%, 매우 좋은 편 5.6%, 매우 나쁜 편은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성적수준에 따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분포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따른 가정경제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중층과 상층이 각 43.4%, 하층이 13.2%이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층 58.4%, 하층 27.2%, 상층이 13.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차이를 교차분석과  $\chi^2$ 검증을 함에 있어서 기대변수가 0.5 미만인 비율이 20% 이상 대부분이어서 가정경제수준을 5점척도에서 3점척도로 코딩변경을 하고 분석을 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가정경제수준이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t값 4.461(p=.000)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많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 대학성적수준의 독립변수가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미



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이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상수	.117		-1.491	.137	
	학년	.018	-.05 4	-.981	.327	.970
	대학교성적수준	.032	.086	1.573	.117	.988
	가정경제수준	.031	.245	4.461***	.000	.970
	R=.269, R <sup>2</sup> =.072, 수정된R <sup>2</sup> =.064, F=8.219, P=.000					

\* p<.05, \*\* p<.01, \*\*\* p<.001

## 2.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진로결정 스트레스가 평균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스트레스가 평균 2.48이고, 학교성적 스트레스가 평균 2.31이며, 아르바이트스트레스가 평균 1.73이고, 등록금 스트레스가 평균 1.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인식 정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록금 스트레스	320	1	3	1.69	.799
학교성적 스트레스	320	1	3	2.31	.688
진로결정 스트레스	319	1	3	2.55	.674
취업 스트레스	319	1	3	2.48	.704
아르바이트 스트레스	320	1	3	1.73	.747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평균 차이

종속변수	가정경제수준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등록금 스트레스	하층	2.0617	.85653	16.408***	a>b>c
	중층	1.6480	.75262		
	상층	1.3333	.65527		
학교성적 스트레스	하층	2.4198	.68673	1.590	
	중층	2.3017	.69391		
	상층	2.2167	.66617		
진로결정 스트레스	하층	2.6543	.59499	11.745***	a>c, b>c
	중층	2.6369	.62439		
	상층	2.1864	.79816		
취업 스트레스	하층	2.6500	.63843	10.569***	a>c, b>c
	중층	2.5251	.67306		
	상층	2.1333	.76947		
아르바이트 스트레스	하층	1.9889	.75829	4.363*	a>c
	중층	1.7374	.73691		
	상층	1.5167	.72467		

\* p<.05, \*\* p<.01, \*\*\* p<.001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등록금 스트레스, 진로결정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에서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 스트레스는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든 스트레스에서 가정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하층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일반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등록금 스트레스	상수	.248		9.678***	.000	
	학년	.038	-.044	-.805	.421	.970
	대학성적수준	.069	.031	.581	.562	.988
	가정경제수준	.066	-.309	-5.698***	.000	.970
	R=.310, R <sup>2</sup> =.096, 수정된 R <sup>2</sup> =.087, F=11.179, P=.000					
학교성적 스트레스	상수	.221		10.905***	.000	
	학년	.034	-.104	-1.857	.064	.970
	대학성적수준	.061	.112	2.008*	.045	.988
	가정경제수준	.058	-.107	-1.915	.056	.970
	R=.186, R <sup>2</sup> =.035, 수정된R <sup>2</sup> =.026, F=3.790, P=.011					
진로결정 스트레스	상수	.211		12.341***	.000	
	학년	.032	.214	3.927***	.000	.970
	대학성적수준	.058	.004	-.081	.935	.988
	가정경제수준	.056	-.178	-3.257**	.001	.970
	R=.299, R <sup>2</sup> =.089, 수정된R <sup>2</sup> =.081, F=10.281, P=.000					
취업 스트레스	상수	.204		10.189***	.000	
	학년	.031	.404	7.956***	.000	.970
	대학성적수준	.057	.049	.974	.331	.989

	가정경제수준	.054	-.168	-3.310***	.001	.972
	R=.461, R <sup>2</sup> =.212, 수정된R <sup>2</sup> =.205, F=28.317, P=.000					
아르바이트 스트레스	상수	.240		9.246***	.000	
	학년	.037	-.064	-1.131	.259	.970
	대학성적수준	.067	.003	-.053	.958	.988
	가정경제수준	.064	-.172	-3.058**	.002	.970
	R=.174, R <sup>2</sup> =.030, 수정된R <sup>2</sup> =.021, F=3.280, P=.021					

\* p<.05, \*\* p<.01, \*\*\* p<.001

학년의 차이에서는 진로결정스트레스에 t값 3.927(p=.000)과 취업스트레스에 t값 7.956(p=.000)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성적수준은 학교성적스트레스에 t값 2.008(p<.05) 로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성적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학교성적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등록금스트레스에 t값 -5.698(p<.001)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진로결정스트레스에 t값 -3.257(p<.01)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에 t값 -3.310(p<.01), 아르바이트스트레스에 t값 -3.058(p<.01)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서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일수록 등록금 스트레스,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경제수준과 학교성적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다.

### 3.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과의 관련성

가정경제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경제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만이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과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아르바이트경험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정경제수준이 등록금스트레스와 학교성적스트레스에 아르바이트경험의 매개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정경제수준이 진로결정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아르바이트경험 매개역할은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45로 정의 역할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78,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30, 매개변수가 -.19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경제수준이 진로결정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아르바이트경험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sup>2</sup>값은 1단계에서 1.2%, 2단계에서 8.9%, 그리고 3단계에서는 12.4%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아르바이트경험 매개역할은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45로 정의 역할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68,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30, 매개변수가 -.162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경제수준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아

르바이트경험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sup>2</sup>값은 1단계에서 7.2%, 2단계에서 21.2%, 그리고 3단계에서는 23.6%이었다

(표 7) 가정경제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아르바이트 경험 매개효과)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	t값	p값	R <sup>2</sup>
가정경제수준/ 아르바이트경험/ 등록금스트레스	단계 1	-.245	4.461***	.000	.072
	단계 2	-.309	-5.698***	.000	.096
	단계 3(독립변수)	-.309	-5.512***	.000	.096
	단계 4(매개변수)	-.001	-.022	.982	
가정경제수준/ 아르바이트경험/ 학교성적스트레스	단계 1	.245	4.461***	.000	.072
	단계 2	-.107	-1.915	.056	.035
	단계 3(독립변수)	-.091	-1.575	.116	.039
	단계 3(매개변수)	-.067	-1.162	.246	.039
가정경제수준/ 아르바이트경험/ 진로결정스트레스	단계 1	.245	4.461***	.000	.012
	단계 2	-.178	-3.257**	.001	.089
	단계 3(독립변수)	-.130	-2.341*	.020	.124
	단계 3(매개변수)	-.193	-3.516**	.001	
가정경제수준/ 아르바이트경험/ 취업스트레스	단계 1	.245	4.461***	.000	.072
	단계 2	-.168	-3.310**	.001	.212
	단계 3(독립변수)	-.126	-2.443*	.015	.236
	단계 3(매개변수)	-.162	-3.146**	.002	
가정경제수준/ 아르바이트경험/ 아르바이트스트레스	단계 1	.245	4.461***	.000	.072
	단계 2	-.172	-3.058**	.002	.030
	단계 3(독립변수)	-.122	2.150*	.032	.068
	단계 3(매개변수)	-.202	-3.582***	.000	

\* p<.05, \*\* p<.01, \*\*\* p<.001

가정경제수준이 아르바이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아르바이트경험 매개역할은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45로 정의 역할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72,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22, 매개변수가 -.202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경제수준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아르바이트경험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sup>2</sup>값은 1단계에서 7.2%, 2단계에서 3.0%, 그리고 3단계에서는 6.8%이었다.

그리고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시간에 따른 아르바이트스트레스 평균 차이를 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참여시간이 21~25시간일 때 스트레스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16~20시간, 26~30시간, 31시간 이상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시간에 따른 아르바이트 스트레스 평균 비교

종속 변수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평균	표준편차	F값
아르바이트 스트레스	10시간이하	1.6140	.67492	2.973*
	11~15시간	1.5750	.71208	
	16~20시간	1.9545	.66638	
	21~25시간	2.0800	.81240	
	26~30시간	1.9524	.92066	
	31시간이상	1.8276	.10182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참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연구주제로 한 기존연구 경향은 아르바이트 참여와 사회적응과의 관계 또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와 스트레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의 참여 실태와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여자 86.3%, 남자 80.5%로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노동부(2003)가 조사한 대학재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비율(35.4%)보다 많이 높고, 이상록(2004)의 연구결과 지방대학생의 근로경험비율(83.1%)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가정경제수준만이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특히 가정경제수준이 상층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없고,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일수록 아르바이트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경제수준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진로결정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취업스트레스, 학교성적 스트레스, 아르바이트스트레스, 등록금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학년의 차이는 진로결정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가 대학성적수준 미치는 결과는 학교성적스트레스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성적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학교성적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등록금스트레스, 학교성적스트레스,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스트레스에 각각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서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일수록 등록금 스트레스, 학교성적스트레스,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의 차이는 학교성적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일수록 학교성적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chi^2$ 검증을 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라 등록금 스트레스, 학교성적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정경제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아르바이트경험을 매개역할로 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경제수준은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즉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인 경우 진로결정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고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아르바이트 참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참여비율이 낮아져야 하며, 아르바이트 참여를 감소하려면 가정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아르바이트, 가정경제수준과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타지역에 비해서 아르바이트의 참여율이 낮지 않은 점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감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다. 대학생들은 1주당 아르바이트 참여시간이 주당 21시간 이상일 때 스트레스지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주당 2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시 학교적응이 낮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불합리한 처우 경험이 있을수록, 장래 희망직업과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있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창구를 행정기관에 설치하고, 정당한 처우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직장체험과 같은 공공의 아르바이트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 여건 및 기간을 확대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주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전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점 등을 가지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스트레스간의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구효진·최진선(2006),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및 근로의식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 김조자·허혜경·강덕희·김보환(2004), 「심리사회적 중재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법,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성인간호학회.
- 김노은(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김예성(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청소년학회.
- 김한솔·김현기(2010), 『인권법평론』 Vol. 1(5).
- 남진열(2009),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노길미(2001), 『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노동부(2009),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사』, 노동부.
- 백지숙(2006),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제4권 제1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사회개발연구부.
- 송남옥(2004),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수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이효선(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문제음주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 이상록(2004), 「지방대학생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준비에의 효과분석」, 『지역발전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지역발전학회.
- 이영희 외(1998), 「교육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4권,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장연집·박 경·최순영(2006),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 전일우(2002), 『본교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8집,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영근·박한샘·김희숙(2003),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16집,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최연실·박한샘·김희숙(2004),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17집,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Steinberg, L. D, Greenberger, E., Garduque, L., & McAuliffe, S.(1982), "High school students in labor force: Some costs and benefits to schooling and learn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
- Ginzberg, E., Ginburg, S. W., Axelrard, S. & Herman, J.(1951), *Occupational choice :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zarus, R. S.(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Experiences and Street Level of College Students in Jeju

Jo, Seoung-Tae\* · Nam, Chin-Yeol\*\*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First is to look over the part-time work situ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and seco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experience and the level of stress. A total of 320 students participate in this study which utilizes SPSS Win 18.0 for its analysis. More statistical data were confirmed through  $\chi^2$ ,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s the follows: First the subjects have a part-time job whose rate amounts to 83.4%. This figure is higher than the previous ones. Second, only house economic statu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into part-time work. Third, we observe how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has an impact on the perception of stress through part-time work.

The result shows that students' level of stress in the areas job hunting, part-time work, and future direction plays a key role in stress. In order to reduce students' level of stress in the areas job hunting, part-time work, and future direction, it is required that the measures

---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taken to resol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ways be suggested to reduce the level of stress doing part-time work.

**Key Words**

Jeju, College students, Level of household income, Part-time, Stress level

**교신 : 남진열**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E-mail : namcy21@jejunu.ac.kr 전화 : 064-754-2934)

논문투고일 2012. 06. 15.

심사완료일 2012. 07. 25.

게재확정일 2012. 08. 14.